



위 지사 “칭다오 항로 협상 조속 마무리” 촉구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만나 “교류 통로… 정상 운영돼야”
새 협정 추진 속 기존 손실보전·법령 위반 문제 논란 여전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에게 제주~중국 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지난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위 지사는 전날 오후 서울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다이빙 대사를 만나 제주와 중국 간 경제·관광·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다이빙 대사는 “중국에서 제주의 지정도는 서울보다 높다”며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에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으며 위 지사는 “도민과 내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계기관, 주제주중국총영사관과 협력해 안심할 수 있는 여행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제주~칭다오 항로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위 지사는 “제주~칭다오 항로는 양국 교류의 통로”라며, 제주도와 중국 측 선사가 진행 중인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 돼 노선이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항로 정상화를 발판으로 물류 확대뿐 아니라 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다이빙 대사는 “제주~칭다오 항로는 양국 발전을 위해 성공해야 하는 프로젝트”라며,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는 만큼 위 지사의 요청을 중국 측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민선 9기 도정은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와 새로운 조건으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전임 도정이 체결한 제주~칭다오 협정의 주된 골자는 중국 선사

제주~칭다오 항로 추진 일정	
2024년	전임 도정, 중국 선사와 협정 체결 (3년간 최대 225억원 보전)
2025년 10월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2025년 10월 ~ 2026년 6월	손실보전금 54억원 지급
현재	민선 9기 도정, 기존 협정 파기하고 2년간 100억원 미만으로 재협상 추진

측이 화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손실을 보면 제주도가 3년 간 최대 225여억원을 보전하는 것이다.

이런 협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제주~칭다오 항로가 개설됐지만 물동량이 턱없이 부족해 제주도는 항로 폐지 논란에 직면했다. 항로 개설 이래 올해 6월까지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54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당시 협정은 장래에 100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계약이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중투심사를 받아야 하지

만, 제주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법하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해 감사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기존 협정을 파기한 뒤 앞으로 2년간 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에 지급할 손실보전금 규모를 100억원 미만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새 협정을 맺어 재정 부담을 더는 동시에,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사) 절차 이행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제주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새 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이미 저지른 법령 위반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재정 폐널itis는 피하지 못한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투심사 절차를 거치고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는 위법하게 지출한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감액 당한다. 또 시민단체는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을 위법하게 체결한 전임 도정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도개선 속도 1단계 91일서 7단계 607일”
국회입법조사처, 제주특별법 단계별 소요 기간 분석
“법령 개정엔 장기간 소요… 현안 신속 대응 어려워”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법 제도개선 소요 기간이 1단계 91일에서 7단계는 607일까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엔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특별자치 20년, 선도모델 제주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주특별법의 단계별 개정엔 소요된 기간을 분석했다.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제주특별자치도 단계별 제도개선 실적 및 소요 기간을 보면, 2006년 1단계 제도개선은 총 91일이 소요됐고, 1062건의 특례와 2049건의 사무이양이 이뤄졌다.

2007년 2단계 제도개선은 총 73일이 소요됐으며 278건의 특례와 419건의 사무 이양 성과를 냈다. 2009년 3단계는 365건의 특례, 495건의 사무이양이 이뤄졌고 총 162일이 소요됐다. 2011년 4단계는 2134건의 특례, 2031건의 사무이양

이 이뤄졌으며, 총 370일이 소요됐다. 2015년 5단계 제도개선은 698건의 특례, 159건의 사무이양에 총 235일이 걸렸다. 2019년 6단계는 712일이 걸리면서 기간만 2년 가까이 소요됐고, 123건의 특례, 87건의 사무이양이 처리됐다.

1~4단계는 비교적 신속하게 권한이양이 이뤄졌으나 5단계 이후에는 단계 간 소요기간이 3~4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이양사무 수도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단계별 제도개선의 추진 속도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며 “관계 부처 협의와 제주특별법 및 관계 법령 개정엔 장기간이 소요되어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이처럼 권한이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양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이 충분히 수반되지 않아 이양된 권한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 기자회견 승부수… 국정 동력 회복 기대

국정 소회 밝히며 자세 낮춰
연임·공소취소 논란 선그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6·3 지방선거 이후 이어진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모두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야권에서 제기하는 연임 개헌·공소취소 시도 의혹에는 모두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내내 진중한 모습으로 야권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이번 기자회견이 국정동력 회복의 디딤돌이 될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린다”며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고 성찰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고 사과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의 발목을 잡는 야권의 연임 공세 등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보이는 쟁점에 대해 허심탄회한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다른 야권의 공세 대상인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서 명백히 국회 측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부미현기자

JDC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본격 분양

이달 7만5000여㎡ 13개 필지 대상 공고 예정

AI 전용구역 별도 배정… 데이터센터 유치 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이달 말부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분양을 시작한다.

JDC가 제주시 월평동 일대에 약 86만㎡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중 1차 분양면적은 7만5000여㎡로 13개 필지, 약 577억원 규모이다.

입주 가능 업종은 IT와 생물화학으로 ㎡당 분양가격은 76만여원이 다. 신청은 13개 필지 중 1개 필지만 신청할 수 있다.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는 현재 공정률이 35%를 넘어섰으며 202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JDC는 AI와 첨단 모빌리티, 청정에너지, 제주 천연자원을 활용한 화장품·식품 기업 등을 유치, 첨단 제

조·정보기술(IT) 산업을 키워 제주도 내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JDC가 2단지의 핵심으로 키울 AI데이터센터는 AI 전용 구역을 따로 배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40메가와트(MW)급 공공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 입주기업은 193개사, 매출액 합계는 8조2000억원, 고용 인원은 3700명이다. 입주기업 매출액 합계는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의 32%에 해당하는 규모다. 카카오와 이스트소프트, 제주반도체, 한국비엠아이, 페리치에어로스페이스 등 IT·BT·항공우주 기업이 들어와 있다. 위영석기자

제1회

서귀서초등학교 총동문

한마음대회

1980년 개교하여 2017년 총동문회를 창립하고 처음으로 동문간의 친목 도모와 선·후배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다채로운 체육경기와 화합 프로그램을 통하여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며 모교 사랑을 실천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지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시

2026년 10월 3일(토) 10:00

장소

서귀서초등학교 체육관

■참석대상

서귀서초등학교 총동문

■연 락 처

회 장 정용훈 010-5132-4167

사무국장 이동주 010-8662-4222

서귀서초등학교총동문회

회장 정용훈

해안동

가족모지 매매

80년대 제주시에서 조성한

사설공원묘지 2부락

지 번

제주시 해안동 355-61

지 목

묘 지

면 적

665㎡(200평)

연 락 처

010-5697-5224

[상세시공이미지]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제주화산상아보조단지]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맛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 758-0065